

치 사 ◎ 글 _ 이희범(산업자원부 장관)

벤처,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는 주도적 역할 기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2005년 벤처주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훈·포장을 비롯하여 영예의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끊임없는 열정과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활력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불안과 내수 경기의 회복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우리 벤처기업들은 혹독하고 냉엄한 시련과 경쟁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착실히 성장함으로써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벤처기업들은 '벤처 100만대군 발대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봉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벤처 100만대군' 발대식은 모든 벤처기업인들의 합심된 의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 고용 없는 성장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27일 범정부적인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고, 금년 6월 8일에는 이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마련한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건전하고 보다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창업대전에 참가하신 학생, 연구원 그리고 창업기업인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의 촉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공장 설립 간소화 등 창업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창업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기업인과 예비창업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아이디어, 그리고 탄탄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창업아이템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인 그리고 창업기업인, 예비창업자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현재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믿으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이를 통해 더욱 큰 역량과 경쟁력을 습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단련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벤처기업협회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